

GGM 유일 부부사원 오종석·허단비 “GGM과 함께 성장해요”



오종석·허단비 매니저 부부와 딸 다경 양이 GGM 어린이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GGM 제공>

“대기업은 아니지만 육아, 복지를 확실히 챙겨주니 주변에서도 ‘좋은 회사’ 다닌다며 부러워 합니다.” 오종석(38)·허단비(34) 매니저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유일한 부부 사원이다. 아내인 허매니저가 지난 2021년 제1호 여성 사원으로 입사한 후 남편 오 매니저는 ‘8전 9기’ 끝에 지난해 11월 GGM에 입사했다.

오 매니저 부부는 GGM이 가정의 든든한 울타라며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도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도와준 회사의 배려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허 매니저는 입사 후 아이를 갖게 되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15개월을 보낸 뒤 지난 5월 복직했다. 현재 딸 다경이를 포함해 세 식구가 함께 GGM으로 출근한다. 부부가 업무를 보는 동안 다경이는 GGM 직장 어린이집에서 시간을 보낸다.

허 매니저는 “전 직장은 일요일만 쉬고, 퇴근 시간도

일정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퇴근 시간이 일정하고 주말은 모두 쉬 수 있어 좋다”며 “회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가깝고 시설, 환경도 워낙 좋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있다. 특히 복직 후 육아 단속 근무를 신청해 오전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할 수 있어서 육아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부부가 근무하는 도장부는 세밀함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두 사람 모두 뛰어난 작업능력을 인정받고 있는데 오는 7월 전기차 양산을 앞두고 더욱 좋은 품질의 차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오 매니저 부부의 가장 큰 소망은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해 세 식구가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GGM이 상생형 일자리라는 애길 듣고 안정된 고용과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생을 통해 우리 부부와 광주글로벌모터스가 함께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호남대 박미라 씨, 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 대통령상

호남대학교 외식조리학과(학과장 김영균) 석사과정생 박미라씨가 최근 ‘제 25회 한국음식관광박람회한국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박 씨는 이번 대회에서 ‘고흥 한상차림’을 주제로 유아생화간장을 이용한 바지락 꼬챙이 구이, 육포, 해물초, 전복장과 고흥항토 음식인 낙지팔죽, 능성죽, 능성이 구이, 유자를 이용한 유자차, 유자즙, 유자정과, 유자쌍화차, 꽃정과, 유자지정떡 등을 선보였다.

박 씨는 고흥에서 한동유자영농조합법인과 자소담유자연구소를 경영하는 한편 유자가공장과 유자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박 씨는 “호남대학교에서 훌륭한 교수님들께 수업과 상담을 받으며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과정에서 좋은 결실을 맺게 돼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쁘고 다음 경연대회에서는 좀 더 세밀하고 정갈한 음식을 선보이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조선대 K-바이오헬스센터, 혁신창업기업들과 협력회의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는 최근 국내 보건산업 분야 혁신창업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조선대가 주관한 이날 회의에는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대전테크노파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인천테크노파크 등

사업책임자와 실무담당자가 참여했다. 회의는 혁신창업기업들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방안 마련과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와 각 지역 병원, 혁신 기관들의 연계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이석우 강진시문학파기념관장 전남 박물관·미술관 진흥위원 위촉



강진군 시문학파기념관은 이석우<사진> 관장이 전남도 박물관·미술관 진흥위원회 신규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석우 강진군시문학파기념관장은 전주대학교를 졸업하고, 광주대 언론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 관장은 광주일보와 전남일보 마케팅 국장을 지낸 뒤 전남 박물관과 미술관 협회 소속 회원으로 활동해왔다.

전남도 박물관·미술관 진흥위원회는 전남 문화와 예술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기구다.

이 관장은 “전남 문화와 예술 분야의 다양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들과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미술관과 박물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전남대 의과학과 박사과정생, 학술대회서 우수 구연상

전남대학교 의과학과 박사과정생 Kuppa Sree Samanvitha(사진)씨가 최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대한운동계 줄기세포 재생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 구연상을 수상했다.

그는 골관절염의 원인이 되는 염증반응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은 논문으로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수상 논문은 연골세포와 대식세포를 공동



다양해 히알루론산(HA)에 의한 염증억제효과를 검증한 논문으로, 관절염 치료를 위한 잠재적인 생체 고분자로서 HA의 가능성을 밝힌 것으로 국제학술지도에 게재된 바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허숙 동강대 간호학과교수, 혈액사업 발전 기여 표창

동강대학교 간호학과 허숙<사진> 교수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으로부터 ‘혈액사업 발전 기여’ 표창을 받았다.

허 숙 교수는 최근 광주 동구 현혈의 집 총장로센터에서 열린 ‘6·14 세계 헌혈자의 날’ 기념식에서 인간의 생명보호를 위한 혈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

세계 헌혈자의 날은 세계보건기구 등이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헌혈자에게 감사와 존



경을 표하는 날이다. 동강대 간호학과 RCY(청소년직접자-희정 김진옥) 동아리 지도를 맡고 있는 허 교수는 매년 4차례 교내에서 헌혈캠페인을 진행하고 헌혈증도 기부하고 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TV프로그램 1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두근두근 버킷리스트(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7]	50 인간극장	00 TV 유지원 30 생생정보 스페셜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감무쌍 용수정(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20 일일드라마 스캔들(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0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인간극장 스페셜	45 보보보 좋아 좋아 스페셜	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	05 지구를 살리는 에센스(재) 10 시사기획 창(재)	00 함부로 대해줘(재)	15 도닥도닥 꼬보 새로운 탐험(재) 45 주니토니 이야기	00 애니갤러리 30 안영 자두야
[12]	00 KBS 뉴스 12	15 영화가 좋다(재)	00 12 MBC 뉴스 25 장에 인식 개선 프로젝트 희망 노트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5 휴먼다큐 마당 이쁜 우리남
[1]	00 KBS네트워크특선 지명수배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25 헬로키즈 TV생물도감(재)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열린채널			00 뉴스브리핑
[3]	10 어린이동물티비(재) 40 팔도밥상 스페셜(재)	00 KBS 뉴스타임 15 거명술을 지켜라! 버디프렌즈 30 TV 유지원(재)	55 기본 좋은 날(재)	
[4]	00 시사건건	00 스튜디오 K 스페셜 30 영상앨범 선(재)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재)	00 새콤달콤 캐치 티니핑 15 니니 뭐하니 2 30 꿀잠 영화가 좋다	10 PD수첩(재)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35 2TV 생생정보	05 남도 탐구생활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토크멘터리	50 일일드라마 스캔들	05 용감무쌍 용수정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1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30 수지맞은 우리	30 월드 24 55 2장 1절(재)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00 놀면 뭐하니? 스페셜	00 골 때리는 그녀들
[10]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KBS 뉴스라인W	10 MA1	30 라디오스타	40 신들린 연애(재)
[11]	3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12]	00 KBS 중계식	10 아이 러브 스포츠 35 꿀잠 영화가 좋다 베스트(재) 55 KBS 재난방송센터(재)	20 복수면 다행이야 스페셜	30 휴먼토크 호남, 호남인(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0 다이너스티 공룡수호대
05:30 클래스 e	11:20 세계테마기행	18:10 EBS 뉴스
05:50 한국기행	12:00 EBS 뉴스 12	18:30 객준빈의 세계 기사식당 2(재)
06:10 세계테마기행	12:10 PD로그(재)	19:20 고향민국
07:00 허풍선이 미술쇼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50 귀하신 몸(재)
07:15 빅 블루	13:45 EBS 평생학교 1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17:30 하프와 친구들	14:30 EBS 평생학교 2교시	<나마스떼 내팔 -카트만두-코시타푸-포카리>
07:45 꼬마버스 타요	15:15 클래스 e	21:35 한국기행
08:00 당동댕 유치원	15:55 블록스	<숨은 교수 찾기 3부 내가 제일 잘 나가>
08:20 안전초코 핫초코	16:10 당동댕 유치원(재)	21:55 왔다! 내 손주
08:50 뽕뽕뽕 부부맨	16:30 페파 피그	22:45 신계속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09:05 골짜와 처음 수학	16:40 마사와 곰	23:35 톰
09:20 탐골스타 개칭이(재)	16:50 도레미 프렌즈 쇼츠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6:55 꼬마버스 타요(재)	24:00 EBS 비즈니스 리뷰
10:30 한국기행(재)	17:10 안전초코 핫초코(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19일 (음 5월 14일 甲寅)

☎ 010-9790-8237

子

36년생 순식간에 벌어지고야 말 것이니 눈 크게 뜨고 지켜 볼 일이다. 48년생 흥한 것이 오히려 복으로 변할 소지가 많으니 낙심할 필요는 없다. 60년생 신중하지 않으면 손재수가 생길 것이다. 72년생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84년생 상대의 내심을 읽을 수 있어야겠다. 96년생 조용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29, 52

丑

37년생 구역을 다 갖추다 보면 대의를 도모하기 힘들어진 다. 49년생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쓰게 마련이다. 61년생 미리 벌어진 틈을 잘 메워 놓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73년생 변화가 생기면서 다소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 85년생 잠자코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97년생 심혈을 기울인다면 노력의 대가가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6, 64

寅

38년생 일부러 나서면 더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 50년생 비단 옷을 입고 밭길을 걷는 격이다. 62년생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74년생 핵심 사항을 놓치지 않아야 대국을 조성할 수 있다. 86년생 실익을 잘 따져서 값진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8년생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는 사실을 알라. 행운의 숫자 : 15, 62

卯

39년생 조심으로 일관한다면 기쁨과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51년생 현대대로 지탱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다. 63년생 행보에 따른 변수가 커다란 영향을 미치리라. 75년생 기교를 부리지 말고 본래대로 행하라. 87년생 이동하면서 분주한 하루를 보낸다. 99년생 부수적인 것에 신경 쓰다가 주된 것의 손실을 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49, 73

辰

40년생 기대했던 바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보게 된다. 52년생 자신의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무가치하다. 64년생 몸을 낮추고 귀를 기울여야 파악할 수 있다. 76년생 외관보다 내실을 기해야 할 때가 되었다. 88년생 앞뜰함 속에서 화폭함이 짙트는 법이다. 00년생 굳이 갈증 필요가 없으니 투명하게 임하라. 행운의 숫자 : 35, 75

巳

41년생 실익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무리가 없었다. 53년생 믿고 추진해도 하등의 문제점이 없었다. 65년생 이리저리 잘 관리해 본다면 훨씬 나은 방법을 찾게 된다. 77년생 오래 갈 인연이 아니니 마음을 비우고 대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89년생 마주 보고 대화하면 쉽게 풀 수 있다. 01년생 생략하듯 추측하면 곤란하다. 행운의 숫자 : 39, 57

午

42년생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54년생 단편적이거나 임시적인 것은 판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66년생 심계전에서만 노닐면 풀고기가 큰물을 만났으니 즐거우리라. 78년생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고 판단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90년생 기쁨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다. 02년생 중심이 되는 곳을 주목하라. 행운의 숫자 : 41, 72

未

43년생 배려된 일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판세이다. 55년생 몸은 고달프지만 보람을 느낄 것이니 수용하라. 67년생 생 제약을 따를 수 있지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79년생 미미한 점이 보인다면 부분적으로나마 보충하여 뒷받침 필요가 있었다. 91년생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니니 안심하라. 03년생 수용하는 것이 백번 낫다. 행운의 숫자 : 40, 92

申

44년생 냉정하게 구분할 수 있었을 때 무난하게 처리된다. 56년생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바를 적나라하게 깨닫게 된다. 68년생 상대의 안색만 봐도 쉽게 인식하리라. 80년생 제 3자의 관점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알라. 92년생 아무런 미가 없으니 무시해도 된다. 04년생 깔끔하게 처리될 것이니 마음 폭 놓아도 된다. 행운의 숫자 : 36, 80

酉

45년생 짐작치 못한 붕패를 예방할 수 있는 지혜가 절실하다. 57년생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69년생 함께하면서 변화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낫다. 81년생 결과가 집착하지 말고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유리하다. 93년생 오랫동안 소원해 왔던 바를 이룰 수 있다. 05년생 생 결과가 의중처럼 좋은 하루다. 행운의 숫자 : 12, 67

戌

46년생 국지적인 것 보다 전체적인 것의 관심이 요구된다. 58년생 숨은 뜻까지 파악할 수 있는 혜안이 절실하다. 70년생 만족도 보다 미래의 가능성에 주목하라. 82년생 실질적인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될 것이다. 94년생 가려서 행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06년생 원동력이 될 만한 요소들이 잘 다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42, 83

亥

35년생 마음을 편하게 가져다 되는 마당이다. 47년생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59년생 앞초 투성이의 운해로 진입하고 있다. 71년생 막연하다면 실수가 잦을 것이니 상관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83년생 건실한 발상 속에서 복이 피어나는 법이다. 95년생 노력한다 면 해결점을 찾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3, 87